

작품 내용

제 목	장물아비
내 용	장물아비 또 납셨네, 오늘은 무엇을 팔꼬? 한참을 들여다본 폴꽃 한 송이 누군가의 발끝에서 깨져버린 연탄 한 장 끝내 건네지 못한 설렁탕 한 그릇 장물아비 사랑 흠쳐 갔다 파네 어린 날 소 울음 남은 외양간 한 칸 타향 사는 한 사내의 화로 한 점 고향 동구 비탈에 남겨진 돌 한 괴 장물아비 고향 흠쳐 갔다 파네 이젠 누가 사랑을 노래하리 이젠 누가 고향을 그리워하리 이젠 누가 소중함을 세어보리 장물아비 하나에 사랑을 잃었네 장물아비 하나에 고향을 잃었네 장물아비 하나에 썸마저 잃었네 기델 곳도, 돌아갈 곳도, 부를 이름도 없네 장물아비 또 납셨네, 오늘은 무엇을 잃을꼬.